신한금융투자 금융 Daily 5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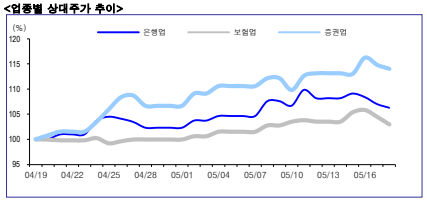
은행/카드 김수현 (02-3772-1515)
증권/보험 손미지 (02-3772-1572)

기준일	시가총액	종가	1D	1W	3M	1Y	PER(배)		PBR(배)		ROE(%)	
2017-05-18	(십억원,$bn)	(원,$)	(%)	(%)	(%)	(%)	17F	18F	17F	18F	17F	18F
은행업지수	81,896	849	(0.6)	(1.8)	9.7	42.8						
신한지주	23,094	48,700	(0.8)	(2.8)	3.5	23.4	8.1	8.2	0.71	0.67	9.1	8.4
KB금융	22,118	52,900	(0.9)	0.0	11.8	61.0	7.8	7.6	0.65	0.61	8.5	8.3
하나금융	12,388	41,850	0.1	(0.7)	15.0	75.5	8.1	7.2	0.53	0.50	6.7	7.2
우리은행	10,410	15,400	(0.6)	(4.0)	13.2	54.2	6.9	6.2	0.49	0.46	7.3	7.6
기업은행	6,944	12,400	(0.8)	(3.1)	(1.2)	9.9	5.4	4.9	0.40	0.38	7.6	7.9
BNK금융	3,201	9,820	(0.2)	(0.2)	10.0	16.4	5.6	5.5	0.48	0.45	8.5	8.0
DGB금융	1,996	11,800	(2.1)	(4.1)	12.4	37.6	5.6	5.0	0.51	0.47	9.4	9.7
JB금융	944	6,070	(0.7)	(3.3)	6.7	13.2	6.1	5.8	0.43	0.40	7.2	7.1
광주은행	639	12,450	(1.6)	(3.9)	18.6	43.8	5.5	4.8	0.45	0.39	8.2	8.7
삼성카드	4,692.3	40,500.0	(0.2)	(3.2)	(1.5)	7.5	11.8	11.2	0.67	0.67	5.7	5.9
BoA	226.3	22.7	(5.9)	(5.5)	(7.0)	57.1	12.5	10.6	0.89	0.85	7.9	8.9
Morgan Stanley	76.4	41.3	(5.6)	(3.6)	(10.1)	55.0	12.0	10.5	1.06	0.99	9.1	9.6
Goldman Sachs	89.0	215.2	(5.3)	(4.3)	(13.8)	36.4	11.4	10.3	1.10	1.03	10.1	10.5
JP Morgan	298.3	84.0	(3.8)	(3.7)	(6.4)	34.6	12.5	11.0	1.24	1.17	10.3	11.2
CITI	165.4	60.1	(4.0)	(1.0)	0.1	32.6	11.6	10.3	0.75	0.70	6.7	7.1
Wells Fargo	261.8	52.4	(1.9)	(2.5)	(9.2)	10.9	12.6	11.6	1.42	1.36	11.7	12.1
BNP Paribas	89.2	71.5	(3.1)	(3.1)	15.4	50.0	10.9	10.1	0.84	0.81	7.9	8.1
Deutsche Bank	38.7	18.7	(3.6)	(2.8)	3.2	27.4	15.3	10.5	0.50	0.48	2.3	4.4
공상은행	252.7	0.7	(1.0)	0.0	0.4	41.2	5.7	5.5	0.76	0.69	13.8	13.1
VISA	211.5	91.7	(1.3)	(0.2)	5.0	19.3	27.4	23.4	7.31	7.11	25.5	28.5
	시가총액	종가	1D	1W	3M	1Y	PER(배)		PBR(배)		ROE(%)	
보험업지수	59,086	1,779	(1.4)	(0.6)	8.1	4.1						
삼성생명	23,500	117,500	(1.3)	(0.4)	10.8	13.1	10.9	16.3	0.8	0.8	5.1	4.9
한화생명	5,672	6,530	0.3	(0.6)	1.6	3.6	12.1	11.0	0.7	0.6	5.6	5.9
동양생명	1,609	9,970	(1.3)	0.6	(5.0)	(8.8)	8.0	7.0	0.6	0.6	7.4	7.5
삼성화재	13,075	276,000	(1.3)	(0.4)	6.8	(2.0)	10.9	10.6	1.0	0.9	9.6	9.2
동부화재	4,758	67,200	(2.5)	(1.2)	6.7	(3.4)	9.2	8.8	1.1	1.0	12.4	11.8
현대해상	3,299	36,900	(2.5)	(0.8)	16.8	20.3	8.2	7.6	1.1	1.0	13.9	13.4
KB손해보험	2,002	30,100	(1.3)	(0.5)	17.1	(2.9)	6.0	5.7	0.7	0.7	13.0	12.1
메리츠화재	2,069	18,750	(0.8)	1.6	23.4	23.1	7.2	6.8	1.2	1.0	16.9	16.3
한화손해보험	644	7,100	(2.5)	(4.1)	4.0	(12.1)	4.8	4.3	0.6	0.6	14.1	13.6
코리안리	1,348	11,200	(0.9)	0.0	0.4	(12.4)	n.a.	n.a.	n.a.	n.a.	n.a.	n.a.
ING GROUP	64.3	16.6	(2.7)	(2.5)	13.9	51.8	11.8	11.4	1.1	1.1	9.9	9.8
GENERALI	26.1	16.7	(0.6)	1.4	1.3	25.6	10.2	9.8	0.9	0.9	9.2	9.5
PRUDENTIAL	44.4	103.5	(4.1)	(4.0)	(6.9)	35.2	9.7	9.3	1.0	0.9	12.6	12.4
METLIFE	53.6	49.8	(3.6)	(3.5)	(5.3)	14.6	9.3	8.7	0.9	0.8	9.9	10.4
CHINA LIFE	102.5	3.1	(1.8)	(1.8)	(0.8)	50.6	23.1	19.1	1.8	1.7	8.3	9.6
MANULIFE	33.6	17.0	(4.1)	(2.6)	(6.2)	28.1	10.4	9.5	1.1	1.1	10.5	11.1
AIA	84.6	7.0	0.1	(0.4)	12.6	29.8	18.5	16.6	2.2	2.1	12.3	13.0
DAIICHI	15.6	22.0	(0.0)	(2.7)	(3.1)	(4.4)	22.9	25.2	1.3	1.4	6.3	5.5
SWISS RE	32.1	89.1	(1.9)	(2.0)	(0.7)	6.9	10.6	10.3	0.8	0.8	8.0	7.8
AON CORP	33.2	126.7	0.0	1.9	8.1	21.6	19.5	15.8	6.8	6.2	39.8	39.3
	시가총액	종가	1D	1W	3M	1Y	PER(배)		PBR(배)		ROE(%)	
증권업지수	25,175	687	(0.7)	0.8	12.8	24.8						
삼성증권	3,358	37,600	(2.0)	(0.5)	12.2	12.7	13.4	12.5	0.7	0.6	5.2	5.2
대우증권	6,330	9,500	(0.4)	2.8	6.0	17.9	15.4	12.5	0.9	0.9	6.0	7.0
NH투자증권	3,883	13,800	(1.4)	(1.4)	20.5	57.5	12.8	11.9	0.8	0.8	6.4	6.7
한국금융지주	3,143	56,400	(0.7)	4.6	15.0	33.4	8.9	8.6	0.9	0.8	10.0	9.6
메리츠종금증권	2,668	4,405	1.3	(0.6)	20.0	39.5	8.2	7.8	1.1	1.0	13.6	13.1
키움증권	1,797	81,300	(0.5)	(0.2)	7.5	14.9	10.7	9.4	1.3	1.1	12.8	13.0
대신증권	640	12,600	(1.9)	(1.2)	11.5	21.0	6.7	6.1	0.3	0.3	5.3	5.6
Charles Schwab	51.3	38.3	(6.3)	(4.2)	(7.6)	32.0	23.5	19.8	3.0	2.6	15.1	15.5
Credit Suisse	29.9	14.3	(2.9)	(6.2)	(4.1)	12.9	16.9	11.1	0.7	0.7	4.5	7.0
CITIC	27.1	2.0	(0.9)	1.5	(7.6)	6.1	13.5	11.7	1.1	1.0	8.7	9.5
Haitong	22.6	2.1	(1.7)	(1.8)	(8.5)	1.5	17.1	14.7	1.4	1.3	8.7	9.3
TD Ameritrade	19.3	36.6	(6.1)	(3.3)	(14.9)	21.9	22.3	18.8	3.3	3.2	16.3	17.5
Nomura	22.6	5.9	(3.6)	(5.1)	(11.5)	46.9	10.0	10.7	0.8	0.8	9.7	8.3
Macquarie	22.1	65.0	(1.2)	(2.4)	3.9	32.2	14.1	13.3	2.0	1.9	13.4	14.3
Daiwa	10.0	5.9	(2.2)	(2.0)	(5.8)	9.2	10.7	10.9	0.9	0.8	8.4	8.0
E*trade	9.2	33.4	(5.3)	(4.3)	(10.2)	25.3	17.1	14.6	1.4	1.3	8.3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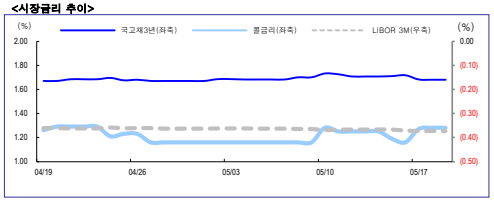
해외증시 지수(pt)	2017-05-18	1D	1W	3M	1Y
DOW	20,663.0	0.3	(1.2)	0.2	17.9
NASDAQ	6,055.1	0.7	(1.0)	3.7	27.8
S&P500	2,365.7	0.4	(1.2)	0.6	15.5
S&P 금융	383.3	0.3	(2.3)	(5.5)	22.4
영국	7,436.4	(0.9)	0.7	1.9	20.6
프랑스	5,289.7	(0.5)	(1.7)	8.7	22.5
독일	12,590.1	(0.3)	(1.0)	7.1	26.6
일본 니케이	19,553.9	(1.3)	(2.0)	1.7	17.5
상해종합	3,090.1	(0.5)	0.9	(3.5)	10.1
홍콩 항셍	25,136.5	(0.6)	0.0	4.6	26.8
대만 가권	9,969.5	(0.4)	(0.3)	1.9	22.2
국내증시 지표	**2017-05-18**	**1D**	**1W**	**3M**	**1Y**
주가지수(pt)					
KOSPI	2,286.8	(0.3)	(0.4)	9.9	16.9
KOSDAQ	638.1	(0.3)	(1.5)	3.1	(6.7)
금융업	490.9	(0.9)	(1.6)	8.8	20.6
시가총액(조원)					
유가증권시장	1,446.3	1,450.2	1,435.4	1,296.5	1,196.7
KOSDAQ	207.6	208.2	210.4	197.6	206.7
금융업	182.3	183.9	182.1	164.2	146.0
증시전체PER(배)					
유가증권시장	9.8	9.9	9.9	11.6	10.6
KOSDAQ	15.6	15.6	15.7	22.3	18.4
금융업	9.0	9.1	9.3	8.9	8.5
증시전체PBR(배)					
유가증권시장	1.0	1.0	1.0	1.0	0.9
KOSDAQ	2.0	2.0	2.0	2.2	2.2
금융업	0.7	0.7	0.7	0.6	0.6
일평균거래대금(조원)	8.9	8.3	10.8	7.5	10.1
유가증권시장	5.8	5.5	7.6	4.7	6.6
KOSDAQ	3.1	2.8	3.2	2.9	3.5
투자자비중(%)					
기관	15.6	15.6	15.6	12.4	9.3
개인	57.0	57.0	57.0	62.0	74.4
외국인	27.4	27.4	27.4	25.6	16.3
기타	0.0	0.0	0.0	0.0	0.0
증시자금 추이(조원)	**2017-05-17**	**1D**	**1W**	**3M**	**1Y**
고객예탁금	-	-	24.1	21.0	22.7
신용융자	7.5	7.4	7.3	7.0	7.2
미수금	0.2	0.2	0.1	0.1	0.2
펀드 설정원본	514.9	514.1	508.1	500.9	470.0
주식형	68.7	68.9	68.7	71.6	78.8
혼합주식	8.2	8.1	8.0	7.9	8.3
혼합채권	22.9	22.9	23.3	25.6	30.3
채권형	104.8	104.5	104.1	105.3	97.7
단기금융(MMF)	138.0	137.5	133.3	131.3	118.6
기타	172.4	172.1	170.7	159.2	136.3
환율 및 금리	**2017-05-18**	**1D**	**1W**	**3M**	**1Y**
원/달러	1,132.0	1,118.3	1,127.9	1,146.3	1,182.6
엔/달러	111.5	110.8	113.9	112.8	110.2
원/엔	10.0	10.1	9.9	10.2	10.7
달러/유로	1.1	1.1	1.1	1.1	1.1
Dollar Index	97.9	97.6	99.6	101.0	95.1
위안/달러	6.9	6.9	6.9	6.9	6.5
미국채10년	2.2	2.2	2.4	2.4	1.9
미국채2년	1.3	1.2	1.3	1.2	0.9
국고채10년	2.2	2.2	2.3	2.1	1.8
국고채5년	1.9	1.9	2.0	1.8	1.6
국고채3년	1.7	1.7	1.7	1.7	1.5
LIBOR(유로)	(0.4)	(0.4)	(0.4)	(0.4)	(0.3)
CALL	1.3	1.3	1.3	1.2	1.5
CD(91일)	2.7	2.7	2.7	2.7	2.7

주요 금융 지표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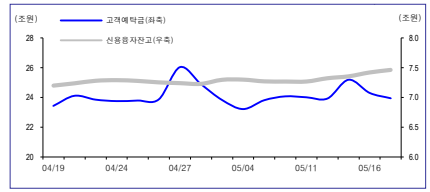
<업종별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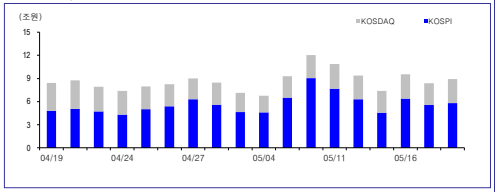
<시장금리 추이>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잔고>



<거래대금 추이>



주요 금융 뉴스 및 코멘트

▶우리銀, 우리카드 1000억 증자 추진…아주캐피탈 인수 활용할 듯 <인베스트조선>
우리은행이 우리카드에 1000억원을 증자함: 사업확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아주캐피탈 인수 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자영업자 대출 놓고 금융당국·은행 엇박자 <매일경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주요 수익원인 대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음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로 집히지 않는 점을 노린 것
은행들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창업 컨설팅은 물론 자금대출까지 연결시켜주는 전문적인 창업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까지 마련: 하지만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을 사실상 가계대출로 보고 금증하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비정규직 제로화' 압박, 신규 채용 발목 잡을라 <뉴데일리>
기업들이 새 정부와 보폭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경우 비용을 이유로 신규 채용에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현재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착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한 뒤 정규직화 방안의 세부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

▶기업은행 올해 결산배당 '580원' 고지 넘어설까? <뉴스웨이>
IBK기업은행 사측의 동상임금 소송 승소로, 투자자들의 올해 기업은행 결산배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증권가에서는 기업은행의 올해 결산 배당이 역대 최고 수준인 1주당 580원(2011년, 결산 기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증권사 덩치 키우기 나섰지만…중소형사는 "지켜보자" <글로벌이코노믹>
중소형사들이 올해 전면 시행된 신NCR제도, 레버리지 규제로 입지가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통큰 자본 확충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음
이를 중소형사의 대주주가 증권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며 증자를 꺼리고 있다

▶대형증권사, 1분기 호실적 배경에는 '배당금수익' <아시아투데이>
올해 1분기 대형 증권사들이 호실적을 달성하는 데 배당금수익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308억원, 미래에셋대우 역시 배당금수익 대폭 증가해 올해 1분기 배당금수익은 3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
NH투자증권도 같은 기간 배당금수익이 144억원에서 244억원으로 100억원 증가, 한국형 헤지펀드 'NH맵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 로부터 유입된 배당금

▶KB증권 해외법인, 합병 후 적자 5배 증가…해외 사업 부진 여전 <아시아투데이>
KB증권의 해외법인이 합병 전보다 적자가 약 5배 이상 증가. KB증권은 올 초 구 대우증권과 구 KB투자증권과의 합병 이후 해외법인들의 손실이 더욱 커짐
KB증권은 해외법인들의 계속되는 손실로 자기자본도 200억원 이상 감소: 올 1분기 KB증권의 해외법인 4곳은 총 118억원의 손실을 기록

▶여승주 호(號) 1년여만에 한화투자증권 흑자전환 <아시아투데이>
여승주 사장 아래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25억원, 당기순이익 175억원으로 모두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흑자전환에 성공.
주천형 전 대표의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과 파격 경영, 그룹과의 갈등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주 전 대표 시절 발행했던 ELS 운용 실패가 발목을 잡아왔었음

▶NH투자증권, 미국 보스턴 랜드마크 빌딩에 1200억 투자 <한국경제>
NH투자증권은 '보스턴 스테이트스트리트 파이낸셜센터'를 담보로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 1억달러어치를 인수
후순위 채권(메자닌 III) 전체를 NH투자증권이 KTB자산운용 펀드를 통해 사들이는 것. 5년여 투자 기간에 연 6.9%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식예탁금 보험료 놓고 예보-증권사 '2라운드' <한국경제TV>
지난 2012년까지 증권사들이 예보에 납부한 보험료는 약 2,600억원으로, 예보가 정한 목표치를 모두 채운 상황
추가적인 납입은 없으나 예보가 목표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이중 규제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입장

▶김상조 '금융통합감독' 추진…미래에셋 지배구조 도마에 <NEWSPIM>
현재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컬처를 중심으로 금융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
정부에서 강력하게 금융그룹통합감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셋 역시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시각이 높아짐

▶동부증권, 해외기업 IPO사업 강화 <매일경제>
동부증권은 최근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을 전담하는 '해외 IPO팀'을 신설, 이를 위해 신한금융투자 출신의 해외 IPO 전문 인력들을 영입하기로 한 상태

▶짧나가던 ELS 발행 제동…4월 한달간 2조원 줄어 <머니투데이>
ELS 발행액은 6조665억원으로 3월의 8조702억원보다 2조37억원(24.8%) 감소
실제로 지난달부터 대표적 기초자산인 H지수가 하락했고, 코스피지수도 역사적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향후 주가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보험부채, 원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동아일보>
2021년부터 국내 보험사에 적용될 새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최종 확정: 이제보험사는 분기마다 해당 시점의 시장금리로 보험 부채를 새로 측정해야 함

▶실효성 논란 '위기의' 보험복합점포 <아시아투데이>
2015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험복합점포에서 체결된 총 보험계약체결 건수는 950건에 불과
보험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모집하는 아웃바운드 영업 방식이 금지되다보니 영업에 한계가 있음

계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대표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신한금융투자